

# 전남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당부

폭염·집중호우·태풍 등 '비상'

총 1000억 투입 보험료 80% 지원

며 26일·콩 7월17일까지 가입해야

전남도는 올 여름 폭염과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에 따른 농가 손실 최소화를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하도록 농가에 당부하고 나섰다.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올 여름 강수량은 평년(9.8월)의 2배가 넘는

20~25일로 예측되고 태풍도 2~3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재해로 인한 농작물 보상으로 농가 소득과 경영안정을 위해 도비 100억 원을 포함 총 1000억 원을 투입, 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또 지난 5월부터 공익직불제와 연계한 홍보와 함께 가입안내 문자발송, 현수막 게시 등 보험 가입 홍보에 힘쓰고 있다.

이에 힘입어 지난 5월말까지 도내 3만 9000농가가 도비 55억 등 총 441억 원을 지원받아 4만 4843ha 면적에 대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했다.

고추는 54%(가입면적 1852ha)가 가입해 지난해 대비 19%가 늘었고 뽕은 41%(1519ha)가 가입, 6% 이상 증가했다.

현재 가입이 가능한 상품은 벼와 콩, 원예시설(작물포함) 등으로 지

역 농축협에서 판매중이다. 올해 폭염피해가 우려되는 작목 중 콩 가입 기간은 오는 7월 17일까지며 벼는 오는 26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김경호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 여름은 지난 2018년에 이어 역대급 무더위가 올 것으로 예보됐다"며 "농가에서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꼭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도는 지난 2018년 폭염과 햇빛 데임(일소)으로 과수 등에 피해를 입은 2000농가에 보험금 37억 원을 지급했다.

김정환 기자

## 이용섭 시장, 정부·민주당에 '광주미래' 현안 지원 요청

전북서 열린 2020년 6월 22일 호남권 시도지사 간담회 참석



이용섭 광주시장이 22일 오후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위원회 호남권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코로나19 관련 광주시의 선제적인 방역조치와 민생안정대책을 설명하고 광주 미래 발전을 위한 일자리 중심의 디지털 그린 뉴딜 사업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광주 미래발전을 위한 각종 현안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22일 오후 전북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위원회 호남권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 코로나19에 대한 선제적인 방역조치와 민생안정대책을 설명하고 일자리 중심의 디지털·그린 뉴딜사업 등의 지원을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낙연 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 김진표 비상경제대책본부장 등 민주당 주요 당직자와 송갑석 광주광역시당 위원장, 양향자·이용빈 의원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광주·전남·북시·도시사가 참석했다.

이 시장은 "광주시는 누적 확진자 33명으로 특·광역시 중 확진자 수가 가장 적지만 긴장을 늦추지 않고 물샷틈 없는 방역망을 구

축하면서, 동시에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7차례에 걸쳐 민생안정대책을 시행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젠 단기적 효과를 넘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정부의 디지털 뉴딜 분야는 광주가 대안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디지털·일자리·그린 뉴딜 등 3개 축으로 관련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정부와 당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디지털 뉴딜 분야는 광주가 대한민국을 선도하고 있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시동차, 에너지, 헬스케어 분야의 학습용 AI데이터셋 구축과 인력양성 △인공지능 체험을 위한 대한민국 1호 AI 시범(실증)도시 조성 △AI 산업육성 및 데이터처리 특별법 제정 등에 당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했다.

또 코로나19로 높아진 환경과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에 대응해 광주형 그린뉴딜 사업으로 추진 중인 친환경 공기산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정부 추경안에 반영되어 있는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설계비 국회 통과를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직간접 고용 1만여 명을 창출하는 대표적인 일자리 뉴딜 사업이자 전국 1호 상생형 일자리 사업으로 선정된 광주형 일자리 사업 성공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요청했다.

특히 광주형 일자리사업 근로자들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주택 지원 규정 마련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광주형 일자리 공장이 들어설 빛그린산단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경제자유구역은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 곳곳에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간담회에 앞서 오찬 자리에서 이낙연 위원장, 김영록 지사와 함께 광주·전남의 가장 큰 현안인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시장은 "군공항 이전은 국책사업이므로 국방부가 중심이 되어 책임감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이전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추가 등 지원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역민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조인호 기자



## 코로나19로 도립미술관 개관 내년 3월로 연기

전남도는 '코로나19' 세계적 확산에 따라 도립미술관 개관을 올 10월에서 내년 3월로 연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남도립미술관 개관준비단은 전남을 국제예술도시로 세계에 알리기 위해 개관행사로 대규모 국제전을 기획하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외미술관이 장기 휴관하면서 교류 중단·지역으로 작품대여협약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다.

또 최근 개최된 전문가 회의에서 세계적인 작품 대여와 소장 작품 보존 안전성 확보를 위해 미술관 준공 후 6개월 내외의 안정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관 연기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도립미술관 개관을 연기하고 전시·운영 분야의 역량과 국내의 미술계 네트워크를 강화해 개관전시를 더욱 체계적으로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개관 기획전시로 '남도 거장과 해외 거장의 비교전시'와 '남도미술 중심 현대미술전', '4차 산업혁명시대 뉴미디어전' 등을 선보이고 국제학술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치호 개관준비단장은 "전남은 문화예술적 자원이 풍부한 곳으로 전남도립미술관 개관을 통해 예향 전남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부각시키겠다"고 말했다.

## 등구, 빈집 채움 프로젝트 청년창업자 약정 체결

광주 등구가 빈집 청년창업 채움 프로젝트에 2차로 참여하는 예비 청년창업자와 약정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계림1동 1~2통, 17~18통 일대 빈집이나 빈 점포를 활용, 마을과 상생할 수 있는 청년창업을 지원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자 올해 처음 추진되는 사업이다.

구는 지난 3월~5월까지 창업에 대한 열정과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 청년창업자 10팀을 선발, 이 중 예비청년창업자 5팀과 지난 4월에 1차 약정식을 가진데 이어 이날 2차 예비청년창업자 4팀과 약정식을 가졌다.

## 서구, 생활폐기물 배출시간 지키기 집중홍보

광주 서구는 지난 19일 상무지구 등 상가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배출시간 지키기, 쓰레기 분리배출, 종량제봉투 배출 무게 제한 등 집중 홍보를 실시했다.

청소행정과 직원, 가로미화원 등 80여명이 참여한 이날 행사는 상무지구 상무중앙로~시청~평화공원 일대 상가를 방문해 진행됐다.

상무지구는 외지인이 많이 찾는 광주의 대표적 상권의 중심지지만 상가, 유흥가에서 종량제·재활용쓰레기를 혼합하여 배출하거나 배출시간을 지키지 않아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여름철 악취로 꾸준히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 김병내 남구청장 "여고생 인정적 학습환경 마련"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은 22일 "가정 형편이 어려운 여고생에서도 학업에 매진 중인 관내 한 여고생의 장애 희망 실현을 위해 장학금 지원을 비롯해 후원자 발굴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지역사회 구성원 및 독지가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김병내 구청장은 지난 17일 광주공원 노인복지관 김기락 신부와 후원 결연을 맺은 뒤 의사가 꿈인 학생의 뒷바라지를 위해 복지정책과에 구청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마련해 하루 속히 지원이 이뤄지도록 업무를 지시했다.

## 북구, 구민 편익 증진 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

광주 북구가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규제 개선에 나선다.

북구는 오는 7월 31일까지 주민을 대상으로 '구민의 삶을 바꾸는 규제 개선 아이디어' 라는 주제로 규제 개선과제를 공모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주민, 기업, 소상공인 등이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 중에 겪는 각종 불편을 해결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공모분야는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부문으로 구분되며 △출산·육아·저소득층·노인 복지 △교통, 주택, 의료 △청년, 경력단절자, 노인 등 취업·일자리 △지역별 △상업·중소기업 창업·생산 △신기술·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총 5개 분야이다.

## 광산구 송정1동 지사협, 청소년 인권교육 실시

광산구 송정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기영철)가, 동 자원봉사캠프와 오는 27일부터 8월 2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송정마을카페 '이공'에서 청소년 인권교육을 진행한다.

'인권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의 하나로 열리는 이번 교육은, '마을에서 피어날 인권의 꽃망울'이 부제.

인권교육에는 조약골 햇빛크돌핀스 대표, 책 〈세상을 바꾼 예술 작품들〉의 이유리 저자 등 여러 인권 활동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선다.

기영철 송정1동 지사협 위원장은 "이번 교육에서 지사협 위원들과 청소년들이 함께 공부하며 인권마을을 위한 초석을 놓으면 좋겠고,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임형택 기자

■ 세무기장 · 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원정의 안전 → 보건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 금지 법안이 입법되었습니다.  
정시간근로는 →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전라남도노사정책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므로써,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급여비	고소득층	중위	3분위	4분위	5분위
비율	1.1배	1.7배	2.1배	2.7배	5.3배
금액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8,103원	26,697원

보건복지부 한국건강보험공단

한국의정신건강연구원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몰 근무 시간엔 90%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의무를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하십시오.

국립이화여자대학교 정신건강연구소